

## 6월 항쟁 16주년 기념 메시지

오늘 6월 항쟁 16주년 기념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열사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슬픔을 간직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독재와 불의에 맞서 앞장서셨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가꾸어 온 국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에 이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분출되었고, 마침내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힘이 오늘에 이어져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참여정부는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써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과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더욱 합심단결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와 내부 분열로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6년 전 오늘 이 땅에 메아리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고 지역간·계층간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열정을 오늘에 되새기며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